

## 권역심뇌혈관센터 심근경색증 등록사업의 시작

(Korean Registry of Regional Cardiocerebrovascular center fo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KRAMI)

경상대학교 순환기 내과 황진용

권역심뇌혈관센터사업은 2008 년 3 개 지방대학병원이 지정 운영되면서 현재까지 전국에 11 개 센터가 운영중인 사업이다. 처음 취지는 지방의 의료형평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시급을 다투는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급성기 치료성적을 수도권과 같이 높이려는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그 역량이 높아지면서 재활과 삼차 예방이 중요한 목표로 확대되었고 이런 포괄적인 의료서비스가 환자에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감시와 평가가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에 2016 년부터 질병관리본부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뇌졸중과 심근경색증(Korean Registry of Regional Cardiocerebrovascular Center fo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KRAMI)에 대한 11 개 권역심뇌혈관센터의 등록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등록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술목적보다는 정부사업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등록사업이다.

둘째, 정부주도의 표준화된 시설 장비 인력과 critical pathway 를 가진 병원의 등록사업이다

셋째, 각센터에서 환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요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약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임상 정보 뿐 아니라 병원전단계와 재활 및 환자 교육에 대한 정보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지속적인 전화추적 및 경과관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여섯째, 정부소유이기 때문에 향후 다른 데이터와의 연계사업을 하기가 유리하다. 사망통계청자료와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 심평원자료와 연계할 법적인 뒷받침을 가질 수 있다.

현재까지 KRAMI 는 정부 예산부족으로 권역심뇌혈관센터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주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대표할 만큼 많은 환자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심뇌혈관질환 예방법이 발효되면 정부는 암등록사업과 마찬가지로 등록사업을 진행해야할 당위성을 가지게 된다. 현재까지 학회 주도의 KAMIR 가 이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큰 등록사업이며 KRAMI 는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본다.